경제혁신 3개년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 국민과 함께 평창 올림픽

경 제 혁 신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3. 15(수)	담당부서	미주통상과
담당과장	박찬기 미주통상과장(044-203-5660)	담 당 자	이주영 사무관(02-3497-1788)

- 산업부 장관,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에너지, 제조업투자, 첨단산업분야 협력 확대 강조 -

- 무역협회 · 주한미국상공회의소(AMCHAM) 주최 한미 FTA 5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 -

□ **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3. 15.(수) 14:00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"**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5주년 기념 세미나**"에 참석했다.

< 행사 개요 >

○ 일시/장소 : '17.3.15(수), 14:00-17:00 / 코엑스 401호 컨퍼런스룸
○ 주최 : 무역협회 -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(AMCHAM) 공동주최
○ 참석자 :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, 김종훈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국 교섭대표, 웬디 커틀러(Wendy Cutler)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미국 교섭대표, 제프리 존스(Jeffrey Jones) 전 암참회장 및 양국 기업인 400여명

□ **주 장관**은 축사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이 지난 5년간 **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틀**로써, **교역, 투자 및 일자리** 창출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며 모두에게 유리한 **성과**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.

□ 우선, **무역분야**에서,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**세계 교역이 10% 감소**하는 상황에서, 양국간 교역이 15% 확대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이 제로섬(Zero-Sum)이 아닌, 두 나라의 먹이를 더 크게 만들어 "**모두가 승자(positive-sum) "로 작용**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.

○ 전반적으로 **한국은 상품 무역**에서 흑자를, **미국은 서비스 무역**에서 흑자였고, 상품과 서비스를 합쳐 한국이 **약 117억 달러 흑자(2015년)**를 보여주고 있으며,

○ 최근 한국의 대미(對美) 상품무역 **흑자가 감소**되는 추세인 것과 향후 **한국경기 호전** 및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을 고려시, 양국간 교역이 점차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.

□ 투자 측면에서도 양국기업의 투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을 기점으로 모두 크게 발전해,

○ **한국기업의 대미(對美) 투자**는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이전 수준에 비해 **약 3배** 가까이 증가했고 자동차, 가전, 반도체, 철강 등 **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** 약 **1만 명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**를 창출했다.

- 근로자에 지불하는 평균임금이 **약 92,000달러**로 아시아 국가중 대미 투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.

○ 미국 기업의 대한 투자도 자유무역협정(FTA) 이전 대비 **약 2배 이상 증가**해, 정보기술(IT), 바이오 등 한국의**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(플랫폼) 제공**에 이바지해왔다고 말했다.

* 한국의 대미 투자: 07-11년 230.9억 달러 → 12-16년 369.7억 달러
미국의 대한 투자: 07-11년 92.9억 달러 → 12-16년 201.6억 달러

□ 주 장관은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 **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을 기반**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더 **확대, 발전**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○ 양국간 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로 **① 에너지, ② 제조업 투자, ③ 첨단 산업 및 기술분야 협력**을 꼽았다.

○ 특히, 지난 주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과의 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"**에너지 산업대화**(Energy Industry Dialogue)" 설치에 합의하였음을 설명하고, 에너지 교역과 인프라 투자 등에 양국 정부가 **제도적, 정책적 지원**을 하겠다고 말했다.

○ **제조업 투자** 분야에서도,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기업의 사업 **경쟁력을 향상**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**양질의 일자리 창출**에 이바지할 것으로,

- 미국 신정부 제조업 부흥정책을 기회로 삼아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기업이 **더 많은 성공적인 동반자 관계로** 나가기를 기대했다.

○ 마지막으로, 주 장관은 4차 산업협력 시대를 준비하면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협력을 중요성을 강조하고

- **사물인터넷(IoT), 인공지능 가전, 입체(3D) 프린팅**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미국의 혁신적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하면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, 공동 연구개발(R&D) 등을 통해 양국기업이 서로에게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박찬기 과장(☎ 044-203-5650), 이주영 사무관(☎ 02-3497-1788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